

다민족 다문화 시대

싱 외국·혼혈인 100만명 사회

“우리는 한 공동체”... 편견·차별 뜯겨자

한국 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외국인을 이방인이 아닌 한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어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식의 기본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74만7천467명으로, 한국 전체인구인 4천800만 여명의 1.5%를 넘어섰다.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Kosian)과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리시안(Amerasian) 등 혼혈인,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합할 경우 국내 거주 타민족 또는 외국인인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지난 3월 말 현재 공식적으로 1만6천73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혼혈인 출산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타민족·외국인 100만 명 시대는 시간문제다 보인다.

이들 타민족·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 출신들은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로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한 가정의 아내 또

한국 사회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 자리매김 국가 정책·국민의식 전환 새 패러다임 만들어야

는 남편으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202개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576명과 불법 체류자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4만6천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도 지난 2000년 1만2천319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3천121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해 결혼한 농촌 총각 1천88명 중 39.3%인 428명은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타민족들은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 출신에 대한 극심한 냉대와 차별대우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빚어낼 가능성마저 우려될 정도다.

지난해 말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중 16.8%가 한국인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직장생

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아내나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코시안들도 또래 집단의 왕따와 차별을 겪으며 냉대감을 앓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함께 국민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재완(55)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깨지는 것은 아쉽고 서운하지만 외국인·혼혈인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는 이들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또 한국인들도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 사회모델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하인스 워드

지역 총인구의 0.5%가 외국인 작년 농촌총각 40% 국제 결혼

■ 광주·전남 외국·혼혈인 현황

▲광주·전남지역 거주 외국인=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는 지난 3월 말 현재 지역 총 인구 338만7천여 명의 0.5% 수준인 1만6천736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지난해 3월 말에는 1만3천75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21.6%인 2천978명이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에 6천8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9천932명이 살고 있다. (표 참고)

▲외국인 아내와 남편=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전남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아내는 2천342명으로 지난해보다 15.2%인 309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동안 결혼한 도내 농촌총각은 모두 1천88명이며, 이 가운데 39.3%인 428명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농촌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셈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의 국적은 중국이 688명(전체 29.4%)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을 통한 혼혈인=코시안으로 불리는 혼혈인들은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남에 3천400여 명, 광주에 24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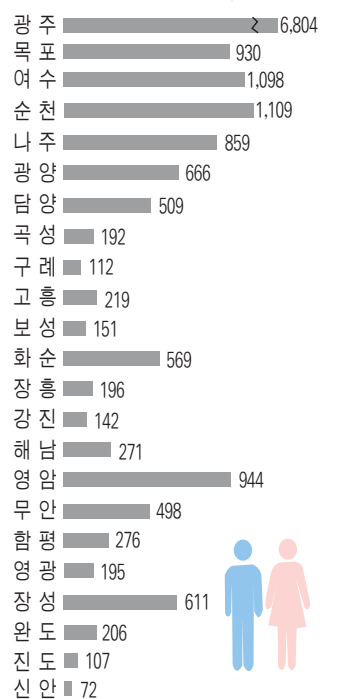
외국인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점이 7~8년 전이라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코시안들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국내 정규 교과과정을 시작하는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는 지난해 말 현재 202개 사업장에서 576명의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58개 사업장에서 183명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불법 체류자가 4~5천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전남 거주(등록)외국인 (2006. 3월말 현재, 단위:명)



18일 니주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코시안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이 학교에는 모두 15명의 코시안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계최초 공기과학 병+난방기

공기를 에너지로
유지비를 1/3로
유해가스를 0%로

사용요금을 실버전짜보다 싸게!

3

2005년 벤처기업 선정자격을 받았읍니다

대표이사: 김민준 (010-9701-0551)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와 인화성탈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십니까?

엘케이그린(주) 대표이사: 김민준 (010-9701-0551)

010-9701-0551